

한국 가곡, 이야기를 만나다

극단 젊은 태양 '그래도 지금은 봄' 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한국적 정서가 담긴 우리 가곡만으로 꾸미는 음악극이 광주에서 공연된다.

순천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극단 젊은 태양이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그래도 지금은 봄'을 무대에 올린다.

'한국가곡 드라마'를 내건 이날 공연은 이무선의 시를 노랫말 삼은 '아리랑'과 함기선의 '꽃바람' 등 한국가곡과 극을 접목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작품은 한 여인의 가슴 시린 사랑과 아픔을 한국가곡의 서정성으로 녹여낸다. 극은 한 여인의 회상으로 시작된다.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와 달빛아래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첫날밤을 지낸다. 이들 사이에는 예쁜 딸이 태어나지만 이내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다. 여인은 달을 보며 남편과의 행복했던 한 때를 회상하며 그리워한다.

이날 공연은 오프닝과 '여인의 기다림', '추억과 회상', '시린 아픔' 등을 주제로 한 10개의 장, 엔딩으로 이뤄진다. 극을 통해

연주되는 17곡은 1시간 20분 간 진행되는 공연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달 아래 정화수를 떠놓고 사랑의 언약을 하는 장면에서는 이남진의 시 '신사랑가'를 노래하고 사별한 남편을 그리워할 때는 윤극영의 '반달'을 부른다. 대형 화면으로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봄의 모습을 표현해 볼거리를 더했다.

한국작곡가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애련 작곡가가 예술감독과 작곡을 맡았다. 소프라노 박선영이 사랑에 헌신한 여인을 열연하고 테너 윤승환, 소프라노 박나래 등이 출연한다. 이고은(피아노), 김황균(첼로), 박가을(해금), 윤민석(피리·장구)이 우리 전통 기악이 어우러진 음악으로 무대를 채운다.

각본과 연출은 서승권 극단 젊은 태양 대표가 맡았다. 수원대 연극영화과를 전공하고 동신대 대학원에서 공연영상예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서 대표는 지난해 연극 '갈매기는 없다'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극단 젊은 태양의 '그래도 지금은 봄'이 오는 13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무대에 선다.

의 뮤지컬 '여덟 빛깔 무지개'를 연출했다. 서승권 연출가는 "기존의 정형화된 클래식 공연에서 벗어나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며 "가장 공감하기 쉬운 내용

로 한국가곡과 극의 특색을 살리고 다채로운 배경을 영상으로 사용해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R석7만원 S석5만원 A석3만원. 문의 010-4411-0995. /백희준 기자 bhj@

화려한 색채 속 '현대인의 초상'

이두환전 30일까지 영산강문화관

화려하게 치장한 말, 토끼, 비둘기, 증절모자, 넥타이 등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한 화면에 배치, 해학적인 모습으로 현대인의 모습을 화폭으로 담은 한국화가 이두환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영산강문화관(관장 장희정) 갤러리에서 열린다.

'현대인의 초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한국화의 전통적 기법을 바탕으로 화려한 색채에 다양한 도상을 접목해 인간의 양면성과 그 안에 감춰진 내면적 자아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 소재는 대인관계에서의 소외감과 관계에 대한 스스로의 외면, 박약한 자신의 의지를 다잡기 위하여 끊임없는 다짐을 반복하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친근한 모티프와 평안한 색조의 화면에다가 다가다 보면 문득 호기심을 자아내는 형상의 조합들이 흥미를 더해준다.

전남대 예술대와 동대학원을 수료한



'현대인의 초상-로시난테'

이 작가는 지금까지 5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세발까마귀회, 새벽회, 전통과 형상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어린이극장 시즌 공연 돌아왔어요

10~11월 복을 파는 유랑극단... 북한 굿, 콘서트로 진행 내달 뮤지컬·인형음악극... 21~22일 클라운타운 초청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가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전당 어린이문화원 내 어린이극장에서 '2018 어린이극장 가을-겨울 시즌공연'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먼저 야외에서 볼 수 있었던 거리극을 극장에서 만난다. 10-11월 오후 3시에는 유랑극단 악단광칠이 굿판을 현대적으로 펼친다. 공연 '복을 파는 유랑 악단'은 이북 지역 굿을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내 무대에 등장하는 무녀들과 어린이 관객이 서로의 안녕을 빌며 소통한

다. 지난 2015년 창단한 악단광칠은 대금, 피리, 생황, 가야금, 아쟁 등 우리 전통악기가 내는 신명나는 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새단장한 ACC 창작·제작 공연이 어린이 관객을 찾아간다. 다음 달 8~9일 어린이뮤지컬 '시아와 친구들-트레저헌터스'를 만나고 같은 달 15-16일 인형음악극 '깜깜나무'가 이어진다. 21-22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클라운타운'을 다시 초청한다. 예매 문의 acc.go.kr,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10일부터 '복을 파는 유랑 악단' 등 '2018 가을-겨울 시즌공연'을 선보인다. <ACC 제공>

국립광주박물관 '토요일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이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특별전 '全羅千 年-전라도 천년을 지켜온 사람들' (내년 2월 10일까지)을 열고 있는 가운데 전라도를 이해하고 전라도의 인물을 알아보는 '토요일! 토요일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말 가족 교육으로 박물관 특별전과 연계해 운영된다. 특별전 기간 중 지정 토요일(10-24-12월8일-22-

1월5일-19-2월9일)에 열리며 매회 40명(15가족 내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특별전시에 대한 기본 이해와 이론 설명, 가족과 함께 직접 전시를 보며 풀어보는 활동지 미션, 호남가로 보는 전라도, 전라도 인물 빙고게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라도 인물 빙고게임 시간과 우리 국악 중 판소리 전공자와 함께 불러보는 호남가 시간도 마련돼 있다. 062-570-7053. /박성천 기자 skypark@

국립나주·가야문화재연구소 학술대회... 오늘 순천대박물관

국립나주·가야문화재연구소는 가야문화 연구의 활성화와 역사문화적 실체를 밝히기 위해 '2018가야문화유산 최신 조사 성과'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9일 오후 1시 순천대박물관 2층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성과를 정리하고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뒀다.

1부에서는 '영남지역 가야문화유산 분포현황조사의 성과와 과제' (민경선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분포현황조사의 성과와 과제' (양숙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호남 동부지역 제철 및 봉수 최신 조사 성과' (조명일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가 발표된다. 2부에서는 '함안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 발굴조사 성과' (이춘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061-339-1114. /박성천 기자 skypark@

시민들의 클래식 들어보세요

광주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전문가와 시민 연주자가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광주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는 오는 10일 오후 5시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주회를 개최한다.

광주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 퍼블릭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광주신포니에타로부터 악기연주를 배운 시민연주자 20명이 참여한다.

'삶을 위한 예술'을 내건 광주신포니에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시민연주자를 모집해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연주회에서 시민연주자들은 전문 연주자와 함께 익숙한 클래식 음악을 무대에 올린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드보



지휘자 이창훈 첼리스트 김민수

르작 '유모레스크', 파헬벨 '캐논변주곡' 등을 연주한다. 오펜바흐 '차클린의 눈물'은 첼리스트 김민수와 협연한다. 이창훈 광주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방송인 이용화의 해설이 곁들여진다. 무료 관람. 문의 062-376-720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립한국문화관 서울 기자촌 근린공원에 건립

'국립한국문화관'의 부지가 서울시 은평구 기자촌 근린공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 유산·원본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전시, 교육을 담당할 '국립한국문화관' 건립 부지로 서울 기자촌 근린공원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립한국문화관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5월 분야별 전문가로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염무웅, 이하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설립추진위원회 아래 건립운영소위원회, 자료구축소위원회 등 2개 실무소위원회를 두어 문화관의 위상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한편 건립운영소위원회는 24개 부지와 국유지 2곳 등 모두 26곳을 심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